

캄캄한 숲에서 만나는 반딧불이 ‘인문도시로 무주다움 완성하다’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신비탐사·반디누리관·반디별 소풍 등 ‘인기’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가 개막 4일 차를 맞이한 가운데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반디누리관, 그리고 반디별 소풍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식지로 직접 떠나는 반딧불이 신비탐사에 참여한 방문객은 2천 4백여 명으로, 방문객이 선선해지면서 반딧불이 출연 개체 수도 증가해 탐사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창원에서 왔다는 김 모 씨(45세)는 "자반이 캄캄한 숲길을 걸어 올라가는 데 마치 길잡이가 돼주는 것 마냥 반짝거리며 날아다니는 반딧불이가 너무 반가웠다"라며 "반딧불이를 따라 눈길을 돌리다 눈 맞듯하게 되는 밤하늘의 별들도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전했다.

이 공간들은 올해 축제를 겨냥해 기존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 리모델링 한 것으로 미디어아트 영상관과 축제 전시관은 축제 이후에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모 어린이(11세, 세종)는 "책에서만 보던 반딧불이도 직접 보고 알부터 성충까지 관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다"라며 "더 많은 반딧불이를 자연에서 볼 수 있도록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환경보호에 힘써줬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9월 8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탐사 시간 19:20~20:20, 일몰 후 1시간 전·후) 진행된다. (인터넷 접수만 진행 <http://www.firefly.or.kr/> | 1인당 1만 5천 원, 참가자 전원에게 무주사랑상품권 5천 원권 제공)이다.

낮에도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주제관과 반딧불이 서식하고 있는 무주의 깨끗한 자연, 그리고 반딧불이의 일생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아트 영상관, 축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제 전시관에도 지난 주말 2천 5백여 명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실감했다.

반디별 소풍(이하 별 소풍)은 '나만의 별자리 정하기와 관찰', '별 이야기 만들기', '1년 뒤 나에게 엮서 쓰기', '스마트폰으로 별 촬영'하기 등 특별한 콘셉트로 인기몰이 중이다.

무주반딧불축제지원단 배은숙 총괄 팀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가 인원 수도 120명으로 늘리고 천체망원경(11

대)과 스마트폰 삼각대(10대) 등 장비도 보완해 별 탐사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관찰 위주의 진행에서 벗어나 각자 돛자리에 자신만의 별자리를 정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 설명을 들으며 스토리텔링과 발표도 해보는 그 시간들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디별 소풍은 지난 8월 31일과 9월 2일 한 회당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이 됐으며 오는 9월 6일과 7일에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사전 예약)된다.

서울에서 왔다는 이 모 씨(42세)는 "아이들이 좋아해서 전국의 천문과학관도 여러 곳을 가봤는데 반딧불축제 별 소풍 프로그램은 뭐가 다르다"라며 "우리 가족 별에 이름을 짓고 이야기를 덧붙이는 모든 순간이 가슴 벅차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마을축제서 가을 느껴요”

8개 마을서 다채롭게 진행

진안군은 9월을 맞아 관내 8개 마을 및 기관·단체에서 다채로운 주제의 마을축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전통혼례

먼저, 7일 동향면 새울 마을에서는 오미자가 빨강계 익어가는 계절에 맞게 '새울마을 오미자 축제'를 진행한다. 오미자청 만들기 체험뿐만 아니라 삼국 놀이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추석의 시작인 14일 부귀면 원세동 마을에서는 메타세쿼이아길 잔디마당에서 시작하는 피톤치드 건강 걷기, 보물찾기, 가을에 어울리는 공연 등이 메타세쿼이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며 같은 날 주천면 안정마을에서도 마을 숲에서 마을 축제를 진행한다.

27일 마령면 신덕마을에서는 도농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신덕마을의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 캐기 체험을 진행한다.

여러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마을 축제도 진행된다. 6일에는 성수 작은 학교 살리기 협의회가 진행하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성수 별빛 축제', 27일에는 가을의 저녁을 만끽할 수 있는 정전 우체국 음악회와 전통혼례 등이 재연되는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축제가 진행된다.

최인석 마을축제 조직위원장은 "연중 진행되는 진안군 마을축제가 9월에도 마을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을의 시작인 9월, 진안군의 여러 마을의 특징을 느낄 수 있는 축제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7회를 맞이한 진안군마을축제는 33개 마을 및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진안군마을축제사무국(063-433-5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무주군·전북대, '인문도시지원사업' 최종 선정

무주군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도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인문 자산을 발굴하고 인문 강좌와 인문 체험, 인문 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민들의 학습 활동과 인문 생활화를 장려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국 5개 지자체와 대학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국비 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무주군은 2027년까지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연특별시 무주, 인문도시로 무주다움을 완성하다"는 주제의 인문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1년 차에는 무주의 역사와 언어로 '무주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2년 차에는 생태와 환경 주제로 '자연특별시 무주!', 3년 차에는 문화 체육을 주제로 '무주의 즐길거리'를, 4년 차에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무주다움을 찾아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인문 강좌와 인문 체험,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한 역사 기행, 토크 콘서트, 전시회,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의 인문 축제 등도 개최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무주다움을 완성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복합문화시설인 무주상상반디숲을 기반으로 지역의 인문 자산 발굴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RED FOOD FESTIVAL 축제장 점검

장수군은 2일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에서 펼쳐질 '2024 RED FOOD FESTIVAL(제18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축제장 현장 점검을 가졌다.

축제를 3일 앞두고 진행된 현장 점검에서는 특별무대를 시작으로 관람객 동선, 교통통제 구간, 행사장 주변 안전 등 축제장 전반에 대한 준비상황과 함께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최 군수는 관람객 이동 동선을 직접 확인하며 무대안전, 위생관리 및 각종 질질 관리, 방문객 안전대책 등 원활한 행사 진행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레드 열린 음악회, 레드푸드 페스티벌, 낙화놀이 등에 많은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상태와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폈다.

최훈식 군수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방문객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축제장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각종 이벤트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축제장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로 18회차를 맞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RED FOOD FESTIVAL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한우와 사과에 집중했던 축제를 오미자, 토마토 등 장수군의 다양한 빨간색 농산물을 아우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오감만족 축제를 기조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취약계층·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신청 접수

진안군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연료비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및 국가유공자이다.

단,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등유

나눔카드를 지원받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유, LPG 등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가구당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이용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경찰서, 농축산물 절도 예방 특별활동기간 운영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는 2일, 수확기를 맞아 농축산물 절도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활동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절도예방 특별활동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점검장소는 절도발생지, 농산물재배지, 축사시설, 건조장소 등 범죄 취약시설이다.

장수경찰서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예방 사전분위 조성 위해 농축산물 절도범죄 취약장소를 읍·면별로 선정하여 절도예방 현수막을 게시(35개소) 했다.

이번 특별활동기간에는 취약장소에 대해 세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홍훈 서장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산물 보관창고 등에 대한 집중적 순찰을 실시하여 범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밤밤곡곡', 윤일암 반일암에 야간경관 명소화

진안군은 관내 지명명소인 주천면 윤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노적교~무지개다리 데크탐방로 1.8km 구간에 야간 경관 명소화를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경관디자인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2억 2,200만원을 확보해 진행했다.

'구름따라 바람따라 흐르는 빛의 소나타'를 테마로 윤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노적교부터 철은교, 도덕정, 무지개다리까지 탐방 데크로드에 구간별 고보조명, 수목등 등 다채로운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윤일암반일암 경관조명 설치로 주자천 계곡을 따라 산책하는 보행자의 안전도 모 및 야간볼거리 제공으로 진안군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색(色)다른 진안의 모습을 선보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